KIPA 칼럼

韓國의 特許歷史 80年을 생각한다

李 承 初
〈特許廳 抗告審判官〉

女子가 出產할 때쯤 되면 걱정이 泰山같다고 한다.

陣痛을 겪어야 하며 不如意하면 自己의 生命마저도 위협받기 때문일게다. 그러나 막상 아이를 낳으면 새로운 生命이 태어났다는 神秘와 기쁨으로 두려움과 苦痛을 一時에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苦痛을 通해서 맛보는 기쁨이라고나 할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苦痛을 通해서 맛보는 기쁨을 日常生活에서 經驗한 바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막상 무슨 일을 始作하려할 때는 豫想되는 苦痛도 苦痛이려니와 "萬一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이는 마치 出產을 앞둔 女子의 마음과도 같을는지 모른다.

그런저런 생각때문인지 여러생각이 뒤엉켜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韓國特許制度 80年史"의 發刊計劃을 세워서 決裁를 받은 것이 지난해 9月 下旬이었다. 그러나 막상 始作을 하고보니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정말 莫然하기만 하였다.

資料나 記錄을 어디에서 찾으며 어떻게 編輯을 해나갈 것인가? 어느 하나 손에 와닿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그저 떠오르는 것은 日本의 100年史가 부럽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스라엘 俗談에 父母팔자 半팔자라더니 그들은 50年史, 70年史가 있었으니 100年史를 편찬하기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에게 주어진 環境과 與件을, 이런 속에서 金을 못캐면 銀이라도, 그것도 안되면 銅이라도 캐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舊韓末 비참한 狀況속에서 强制로 他意에 依해서, 그것도 不法的으로 出生하게 된 畸形兒와 같은 우리나라의 特許制度, 不幸하게 태어난 뒤에도 계속 짓밟혀서 日帝의 36年, 解放과 軍政의 混亂期와 6.25 動亂의 戰禍속에서 疎外될대로 疎外되고, 放置될대로 放置된 不運의 歷史이었기에 資料나 記錄같은 것을 滿足스럽게 期待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狀況下에서 歷史의 발자취를 찾아서 "韓國特許制度 80年史"를 엮어보겠다는 생각은 그 생각 自體가 意慾만 앞선 무모한 만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다.

그러나 80年의 歷史가 결코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60年代 後半부터 漸次 發展해온 우리나라의 特許制度가 最近에는 國家元首께서도 特許制度의 重要性을 强調하시기에 이르렀으며(1987年 特許廳 年頭 業務報告時 指示事項) 現代化計劃에 따라 90年代를 向한 長期發展計劃等 劃期的인 發展像은 오히려 初創期의 쓰라림과 萎縮됐던 中間期의 不足함을 充分히 挽回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앞으로의 靑寫眞까지 볼 수 있기에 말이다.

이런點에 힘입어 無謀한 蠻勇이라는 생각보다는 勇氣와 希望을 주는 波長의 掩襲으로 數個月을 지내온 것이다. 그동안 그런대로 資料와 記錄을 蒐集하고 蒐集된 資料나 記錄을 通해서 몇가지 새로운 事實을 發見하고 스스로 反省과 自覺의 門을 두드리게 되었다.

먼저 느낀 것은 우리들이 너무도 無關心하였다는 事實이었다. 흔히 "韓國特許制度의 嚆矢는 1908年 8月 12日 勅令 第196號로 公布된 韓國特許令이다." 이렇게 써 왔으며 그 勅令은 당연히 舊韓國 純宗皇帝의 勅令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勅令은 純宗皇帝의 勅令이 아닌 日本의 所謂 明治天皇의 勅令이었다는 事實이다. 그 內容도 當時 日本에서 施行되던 特許法(明治 32年 7月 1日 改正된 것)을 韓國에서 施行한다는 것이 이른바 韓國特許令의 要旨인 것이다.

勿論 그 當時는 日本이 우리나라를 統監政治하던 時期였다고는 하지만 1907年 7月 24日 兩國이 協定한 韓日協約 第2條에 依하면 "韓國政府의 法令의 制定及 重要한 行政上의 處分은 豫히 統監의 承認을 經할 事"라고 되어있다. 이런것으로 보아 法令은 形式上으로나마 韓國政府에서 制定·公布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疑心없이 우리나라의 勅令인줄 알았던 것도 法體制上 當然之事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問題는 日本이 무슨

根據에 依하여 그렇게 工業所有權法에 限해서만 日本勅令으로 公布하였는지 모르겠지만 現在로선 納得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問題는 좀 더 具體的으로 調査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아무런 생각없이 韓國特許令에 對하여 잘못 認識해 왔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도 不敏하였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뿐이다.

이미 지나간 歷史의 不幸이지만 그런대로 正確하게 是是非非를 가려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이 問題 以外에도 韓國 內閣告示 第4號의 性格·公布日·또는 韓國特許令의 施行日等 여러가지 問題들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綜合整理하여 어느것이 또는 어느날이 우리나라 特許制度가 始作된 出發點인가를 가려야할 것으로 본다(다음 機會에 具體的으로 提示하여 많은 분들의 高見을 듣고자 함).

또 한가지 느낀點은 日本이 오늘날의 日本으로 成長하기 위하여 技術立國을 指向한 것은 오래前의 일이었으며 이렇게 長期的으로 一貫性있게 國力을 기울여 왔음은 새삼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日本의 工業所有權制度 100年史의 上卷 5페이지에 收錄된 짧은 記錄이 그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옮겨보면

"朝廷은 中國大陸이나 朝鮮의 技術을 우리나라에 定着하게 하려고 腐心했다. 百濟로부터의 王族이나 技術者의 亡命을 받아들이고 技術者라는 特權的인 集團을 만들었다."

이런 精神에서 日本은 明治維新後 國家目標를 두가지로 세웠다. 하나는 富國强兵이요, 또 하나는 殖產興業이었다. 殖產興業이 特許制度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음을 看破하고 1885年에 日本은 特許制度를 導入하고 이 制度를 잘 運用하여 이른바 消化改良의 名手가 되었으며 現在는 世界經濟大國으로 成長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하나 느낀點은 日本人들의 徹底한 記錄主義이었다. 韓國特許制度의 뿌리를 찾다가 1907年 6月 25日의 內閣會議錄에서 史料的 背景이 되는 것을 發見하였다.

當時 統監의 主宰下에 大小國政을 論議하던 大臣會議의 會議錄에서 伊藤統監이 머지않아 韓國에서 特許制度를 實施하게 된다는 것을 豫告한 것이다. 勿論 記錄이 重要한 史料的 價値가 있는 것이지만 또다른 面으로 비록 侵略國이지만 記錄하는 點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點이 아닌가 하여 80年前의 會議錄을 한번 살펴본다.

大臣會議 筆記

韓國施政改善에 關한 協議會議 第19回

開催時刻 : 明治 40年(1907年) 6月25日 午後 3時30分

場　　所 : 統監官舍

列 席 者 : 統監 侯爵 伊藤博文

內閣統理大臣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度支部大臣 高永喜　軍部大臣 李秉武　法部大臣 趙重應　學部大臣 李載崑　農商工部大臣 宋秉畯　統監部總務長官 鶴原定吉

通譯者 統監府書記官

筆記者 統監 秘書官

伊藤統監「至今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確定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머지않아서 그와 같이 實行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貴意를 알아 두고자 함이다. (中略) 昨年 美國政府로부터 日本政府에 대하여 美國人의 發明特許·意匠·商標 및 著作權을 韓國에 있어서도 日本의 法律에 따라 保護해 줄것을 要請한바 있었다. (中略) 만약 日本人이 韓國人과 共謀하여 韓國人 名義로써 詐欺를 圖謀하였을 적에 이 規程을 設定하여 두지 않으면 이것을 取締할 方途가 없으므로 해서이다. 그리하여 美國의 意思는 全的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이 措置後에 오는 影響은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伊藤統監은 日本特許法을 引證하여 그 罰則等을 各 大臣들의 參考가 되게 하고자 一讀한다. 午後 6時 40分 散會하다.

얼마나 僞裝된 侵略戰術인가를 알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그 徹底한 記錄主義라고 하겠다.

아직 始作에 不過한 韓國特許制度 80年史의 發刊作業이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善惡이 皆吾師라는 옛말과 같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잘 받아 들여서 消化를 한다면 分明 우리에게는 스승이 될 수도 있으며 藥도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스라엘 民族이 3,000餘年前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의 쓰라림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속박을 벗어난 날을 國慶日로 定하고 그 때의 쓰라림을 되새기는 뜻에서 쓴나물을 먹고, 새로운 團結을 위하여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계란은 삶을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에) 世界 各處에 흩어진 民族의 再結合을 다짐하더니 끝내 2000年이란 긴 세월이 지난 後에도 다시 나라를 세울수 있었다는 이스라엘 民族의 國家觀을 생각케 한다. 역시 歷史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結果가 달라진다는 것도 생각케 한다.

아무튼 女子가 出產을 앞두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는 것과 같은 心情이기는 하지만 出產後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길 바라면서 韓國의 特許歷史 80年을 생각해 본다. 〈㈜〉